

# 군공항 이전 수년째 헛바퀴...장밋빛 청사진 될 우려

## ■광주시 '군공항 부지 개발 로드맵' 풀어야할 난제 첩첩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과 부지 개발 로드맵을 마련 중인 광주시에 풀어야 할 어려운 난제가 여럿 놓여있다.

우선 지난 2016년 광주 군 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결과 '적정 판정'이 나오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전 부지 선정을 놓고 수년째 헛바퀴만 돌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올해 발표할 예정인 '군 공항 부지 개발 로드맵' 자체가 '장밋빛 청사진'에만 그칠 것이라는 비관 여론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이전 권(광주시)→이전타당성 검토(국방부)→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국방부)→이전후보지 선정(이전후보지 선정위)→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후보지단체장)→이전부지 선정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광주 군 공항의 경우 2014년 이전 권의서 제출, 2016년 군 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적정판정)를 받았지만, 국방부는 다음 단계로 사업을 끌고갈 의사가 없어 보인다. 국책사업인 만큼 국방부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해야 하지만, 국방부는 이전 후보지

## 2016년 타당성 평가후 스톱

## 국방부 이전후보지 선정 손바

## 군용기 소음 보상 간소화도 변수

로 거론되는 기초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듯 수년째 선정을 미루고 있다. 이때문에 광주 군 공항은 이전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로, 현재 전남도와 민간공항이전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소 2차례 이상 단독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가 군 공항 이전 관련 기초단체와 주민들을 설득할 방안을 마련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이하 군 소음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조만간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점도 국방부가 이전과 달리 군 공항 이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돼 국방부로서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데 이전 후보지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광주시와 시민들의 희생만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군 소음법 제정으로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게 될 것이다"면서 "민간공항이 무안으로 통합되는 것 역시 당장은 시민 불편이 뒤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에 사활을 걸고, 종전부지 개발은 후순위로 미뤄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고, 군 공항부지 개발을 위한 준비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공항 부지에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와 함께 경제성과 상징성을 갖춘 기업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 스마트 시티 조성 구상과 관련한 비판적 여론도 형성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광주군공항에서 민항기가 활주로를 지나 이륙하고 있는 모습. 광주군공항 부지 면적은 8.2㎢(약 250만평)으로 광주공항은 군공항 부지 안에 약 3.6만평 규모로 들어서 있다. 군공항 부지는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12만평)의 20배 이상, 상무지구 전체 면적(100만평)의 2.5배에 이를 정도로 광활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데, 11월 마감 예정인 대기업 시내 면세점 사업자도 유치를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테마파크 추진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이해찬 "조국 사태 송구...청년 박탈감 헤아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이 깊어지게 해 아리송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난 14일 사퇴 이후 조국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

는 '송구하다는 것이 사과냐'는 질문에 "표현대로"라며 "두 달 반 동안 갈등이 심했다. 그 그런 부분에서 국민이 많이 실제로 지쳤고, 그런 점에 대해 당의 입장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조 전 장관 낙마 이후 당 일각에서 쇄신 요구, 나아가 이 대표 책임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당내 쇄신 및 당직 개편 요구에 대해 "여당의 쇄신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잘 만들어 국민에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이라며 "당직 개편 얘기는 당내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번 일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도 절감하게 됐다"며 "지금 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정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와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개혁하는 데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년 4·15 총선과 관련, "그제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

획단을 발족시켰고 이번 주 중 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실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총선기획단이 발족하고 선거기획단을 만들 때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인제 영입과 관련해 "공인재영입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인데 가치를 공유하는 참신한 인물을 영입해 준비된 정책과 인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엔 국무총리의 당 복귀 문제와 관련, "차기 대선주자로 지명도가 높아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당원이 있다"며 "그러나 이 총리 의향뿐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이 매우 중요하며, 인사권자가 따로 있는 만큼 당이 더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선거·사법개혁 법안 12월 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패스트트랙 공조 4당 원내대표

지난 4월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조한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30일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는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

영·민주평화당 장병완(현 대안신당 소속)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법은 중단 없이 처리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특히 선거제 개혁 법안과 관련해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 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며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초 관련법을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우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

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안 처리와 수정안 처리 등 어떤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의견과 향후 전략 등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각 차도 있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그림속 지하철은 왜 우울하고 잿빛인가

김은영의 '그림 생각'

(287) 지하철

어쩌다가, 공황이나 송정역을 가야할 때 지하철을 몇 번 탄 적이 있다. 집에서 꽤 먼 거리라서 운전하기에도, 택시 타기에도 부담스러웠는데 문화전당역에서 송정역까지 23분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라는 것이 거의 경이로웠다. 긴 세월 초미의 관심사였던 광주도 시절도 2호선이 드디어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개인적으로 점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까닭에 알게 모르게 넓게 확장된 광주 시내를 좀더 빠르고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 역사가 일천해 깨끗한 광주 지하철과는 달리 뉴욕이나 런던은 지하철 역사가 100년이 넘어서인지 지하철에 그림을 그리거나 지하철을 소재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뉴욕 지하철에 그린 일회성의 낙서화로 명성을 날린 키스 해링, 뉴욕 지하철을 배경으로 도시인의 익명성과 우수를 유령처럼 그렸던 에드워드 호퍼 등은 현대인의 풍속도에 지하철을 일찍이 끌어들이었던 작가들이다. 색면 추상표현주의의 기념비적인 작

가 마크 로스코(1903-1970)의 '지하철' (1937년작)은 1900년대 초 뉴욕 지하철 풍경을 일련의 연작으로 그렸던 작품 중의 하나이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무표정한 모습으로 열차를 기다리는 인물과 지하 공간의 기둥 사이로 숨어들 듯 등 돌리고 있는 신사 역시 불안하고 쓸쓸해 보인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1차세계대전의 폐해와 혼란을 피해 뉴욕으로 건너온 마크 로스코는 '지하철 환타지'라는 연작을 통해 지하철 입구,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는 무심한 인간군상, 열차를 기다리며 서서 신문을 읽는 사람, 아무도 듣는 이 없는 악기를 연주하는 지하철 계단 위의 악사 등을 그려 뉴욕 지하철을 인간 소외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탐구했다. 마크 로스코의 지하철 연작은 미국 대공황 시기가 출고 암울한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지만 후일 색면 화가로서의 특징을 예고하듯 절제된 색면 분할이 감각적이면서도 시적이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마크 로스코 작 '지하철'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 제 30-0949873호 |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 1566-9988

#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곡점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 옛. 밝은광주안과